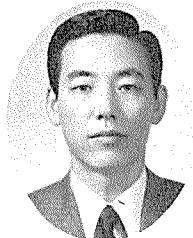


石油業界의 當面課題와 対応戰略



尹秀吉

〈動力資源部 石油調整官〉

I. 序

일반적으로 모든企業은 궁극의 목표가 利益의 極大化를 통한 자체의 生存性유지라고 여겨지고 있다. 물론 政府가 특정의 目的達成을 위해 설립한 公企業의 경우는 반드시 利益극대화만이 기업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한 健全財務構造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이러한企業의 이윤동기야말로 현재의 資本主義 사회를 이끌어가는 原動力이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보다 좋은 製品을 보다 저렴한 價格으로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供給함으로써 自由競爭体制下에서 경쟁기업을 물리치고 利益을 확보해 나아가려는 제도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보는 高度의 文明社会가 건설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히企業이 利益極大化만을 도모할 경우, 資本主義가 갖고 있는 弊害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서企業의 公益性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의 기업이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競争企業과 談合함으로써 不當하게 가격을 올린다든지 또는 종업원의 労賃을 착취한다든지, 反社会的인 製品生產을 한다든지 할 경우, 그企業이 속해있는 社会를 파괴하게 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사회에 속해있는企業마저도 파괴하게 된다는 점에서企業은 그가 속한 社会에

貢獻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기업의 利潤動機는 기업의 社會貢獻性에 의해 制約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의 社會貢獻性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企業의 기본적인 生存条件인 利潤追求와 相馳하게 되어 기업으로서 存在하지 못하게 될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기업의 生存性과 기업의 社會性은 両者間에 적절한 調和가 유지되어야 하며 어떤 線에서 조화를 이룰 것인가는 그 時代의 背景이나 社会의 環境등에 따라 기업과 사회의 두 利益集團의 力勢關係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企業의 社會性은 모든 기업에 共通의 으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특히 国家의in 중요 한 物資를 생산하는企業에 있어서는 한층 더 그重要性이 강조되고 있으며, 精油業界야말로高度의 社會貢獻性이 요구되는 產業分野라고 할 것이다.

II. 國내 精油業界의 課題

이런 점에서 國내 精油業界가 부딪히고 있는 課題는 기업의 生存性을 유지하기 위한 適正利益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課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各精油會社別로 적절한 市場占有rate유지, 正常稼動을 위한 所要原油의 확보, 國內需要의 변화에 따른 製品의 適期供給등이 문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精油業界는 國家적으로 가장 중요한 基礎에너지인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高度의

社会性 確保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내 精油業界는 諸多的 物量을 適期에 安定的으로 供給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을 支援해 왔다는 점은 누구도 否認하지 않지만 不幸히도 국내 정유업계에 대한 국민의 視線은 반드시 友好的인 것이라고는 斷定짓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 精油業界는 業界가 수행하고 있는 任務에 대해 정당하게 評價받기 위한 노력을 계울리해서는 안될 것이며, 또 国民의 輿望에 부응할 수 있는 企業倫理를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1. 精油業界의 当面課題

제 2차 오일·쇼크 이후 국내 精油業界는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다. 다행히 지금은 다소 事情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언제 또다시 不足事態가 올지 모르는 原油確保問題를 비롯하여 80년이후 악화된 經常收支와 이에 따른 市場擴張問題, 그 밖에 이제부터는 業界 스스로가 결정하게 된 油価管理問題 등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山積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하나 하나 문제점을 分析해나가서 적절한 解決方案을 강구하는 것이 精油業界의 当面課題라고 할 것이다.

(1) 精油業界의 缺損問題

적절한 利益의 확보는 기업자체의 건전한 生存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企業의 건전한 發展을 통해 国家도 健実性을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장 基本的인 과제라고 할 것이다. 그동안 精油業界는 어느 정도 利益을 시현함으로써 缺損에 대한 심각

한 문제를 認識해본 일이 없었다. 그러나 제 2차 오일·쇼크 이후 급등한 原油価와 国内換率의 自律化에 따른 急上昇 등으로 80년도에는 막대한 赤字를 나타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81년중에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表 1 참조)

즉 79년에는 石油安定基金을 통한 損失補填의 결과 전체적으로 1百94億원의 利益을 실현하였던 業界가 80년중에는 石油安定基金을 통해 精油社에 1천 6백 17億원의 支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백 2億원의 欠損을 나타냄으로써 精油会社의 自己資本額 1천 2백 66億원의 33% 이상을 잠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81年度에도 약 1천 6백 ~ 1천 8백 億원의 赤字가 예상되는 것이다.

더우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1個年度의 赤字는 단순히 当該年度의 赤字로서 끝나지 않고 赤字發生에 따른 資金圧迫으로 次后年度에도 欠損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데에 問題가 있는 것이다.

〈表 1〉 年度別精油会社損益 ('76~'80)

(단위 : 億원)

社 別		油 公	湖 油	京 仁	双 龍	極 東	計
'76	(税 後)	160	95	37	-	4	296
'77	(税 後)	△ 32	38	19	-	3	28
'78	税 精 油	143	83	18	-	5	249
	其 他 (石油化等, 潤滑油)	137	32	53	-	7	229
	前 計	280	115	71	-	12	478
	税 後	182	60	38	-	5	285
'79	補 填 額 ¹⁾	115	180	104	-	8	407
	補 税 精 油	-	126	△ 21	-	△ 5	96
	其 他	233	39	54	-	10	336
	前 計	233	161	33	-	5	432
	税 後	113	61	18	-	2	194
'80	補 填 額 ¹⁾	295	858	71	353	40	1,617
	補 税 精 油	△ 234	149	△ 9	△ 80	△ 15	△ 189
	其 他	262	40	△ 22	-	7	287
	前 計	28	189	△ 31	△ 80	△ 8	98
	税 後	△ 346 ²⁾	80	△ 48	△ 80	△ 8	△ 402

1) 補填額에는 原油高価差額 補填 除外

2) 民営化時 在庫評価方法의 變更(先入先出→後入先出)을 国税廳이 認定치 않아法人税等 374億원 納付

□ 特輯 : 석유업계의 当面課題와 展望

그렇다면 이와같은 대규모 赤字發生의 原因은 무엇인가? 첫째로 原油価의 급등이 그 原因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78年末에 原油価(아라비아輕質油기준)가 12.70 \$/B 이었던 것이 80年末에는 32 \$/B 까지 치솟게 됨으로써 原油価 인상분은 国内油価를 통해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原油価의 引上에 따른 金融費用은 油価에 転嫁되지 못하였던데에 欠損發生原因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 둘째로는 80年 1月12일에 실시된 換率引上과 80年 2月29일 이후의 換率自律化에서 그 原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80年 1月12일 이전의 換率이 485원/\$이었음에 비해 81年 8月현재 690 원/\$수준을 유팽하게 됨으로써 각종 換差損發生이 심각하였다 것이다.

그 밖에 原因으로서는 国내 경기침체에 따른 油類需要감소등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하면으로는 精油業界 자체가 欠損發生에 적극적으로 対処하지 못했던 것도 欠損悪化原因의 일부로 보여진다.

79년~80년중에 발생한 欠損에 대해 政府는 그欠損要因을 분석하여 業界가 不可抗力으로 입게 된 損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그 損失을 石油安定基金으로 補填해준 바 있으나(表2 참조) 81年 度에 와서는 安定基金에 의한 精油会社 損失補填은 최대한 抑制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精油業界로서는 이러한 막대한 欠損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当面課題가 될 것이다.

(2) 精油業界間의 판매 경쟁問題

최근 정유회사의 旋設能力 과잉 및 国내 油類需要 감퇴에 따라 精油会社間에 輕質油市場 확대를 둘러싸고 치열한 販売戰이 벌어진 바 있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政府의 적극적인 慊漚과 국민들의 비

난에 따른 業界의 自肅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販売戰 再發은 国내 施設能力의 余裕가 있는 기간중에는 항상 可能性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自由競爭市場에서 좋은 품질의 製品을 생산하여 낮은 価格으로 공급함으로써 市場擴張을 꾀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 度가 지나쳐서 公正로운 流通秩序를 해치게 될 경우는 오히려 社會的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結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특히 赤字를 무릅쓰고 割引販売를 함으로써 일반 消費者가 利益을 볼 수 있다면 좋지만 지난번의 경우와 같이 최종 소비자는 利益을 보지 못하고 中間流通業者가 그 利益을享受한다면 정유업계는 그 赤字를 누구에게 補填해 달라고 할 것인가?

최근 公正去來法의 실시와 더불어 精油業界도 상호간에 善意의 경쟁을 통해 市場擴張을 도모하는 것은 더욱 더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度가 지나쳐 業界相互間에 회복할 수 없는 傷害를 입게 된다는 것은 国民生活의 基礎에너지 공급하는 精油業界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며, 결국 그被害은 業界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国民이 입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念頭에 두어야 할 것이다.

〈表2〉 安定基金에 依한 精油会社 補填実績 ('79~'80) (单位: 億원)

社別		油公	湖油	京仁	双龍	極東	計
'79年	(1) 上半期原油価差額	75	-	2	-	-	77
	(2) SPOT原油導入損失	-	9	34	-	-	43
	(3) 製品導入損失	40	35	17	-	-	92
	(4) 低価原油인 センティブ	-	136	-	-	-	136
	(5) 輸送費差額	-	-	51	-	-	51
	(6) 原油質差異基準価格調整	-	-	-	-	8	8
計		115	180	104	-	8	407
'80年	(1) USANCE換差損(90日分)	277	228	47	40	13	605
	(2) 低価原油인 センティブ	-	630	-	-	-	630
	(3) 新設精油社 支援	-	-	-	256	-	256
	(4) 原油導入先多邊化 (輸送費差額)	-	-	7	-	-	7
	(5) 備蓄施設促進	-	-	-	11	13	24
	(6) 原油質差異基準価格調整	18	-	17	46	14	95
計		295	858	71	353	40	1,617

註: 原油高価差額 補填除外

□ 特輯 : 석유업계의 当面課題와 展望

2. 精油業界의 長期課題

(1) 所要原油의 安定的 確保문제

78年末의 이란事態에 따른 제2차 오일·쇼크以前까지는 所要原油의 확보란 그다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原油의 공급은 과잉상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비록 価格上의 문제는 있었을지라도 必要한 物量의 확보는 모든 論議의 대상에서除外되었으며, 설혹 論議되었다 하더라도 면 훗날에 가서야 발생할 事態으로 가볍게 생각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事態 이후 物量不足 문제가 심각하게 되자 各国이 앞다투어 物量確保에全力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長期의 뿐만 아니라 短期의 으로 所要原油 확보 문제가 절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世界 경기침체 및 油類消費節約施策에 힘입어 原油의 需要가 대폭 축소된 반면 이란-이라크戰爭의 소강상태 유지에 따른 両국의 原油輸出 再開로 供給物量이 늘게 되자 다시 世界 原油需給사정은 공급과잉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周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과잉상태가 얼마나 계속될지는 아무도 予測할 수 없으며 언제 어떻게 物量不足 문제가 再發될지 모르는 不安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月19日 제네바에서 개최된 OPEC 特別閣僚會議에서도 현재 과잉상태를 보이고 있는 原油事情에 대한 対処方案이 重點的으로 論議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81年末경에는 原油需給문제나 原油価에 대한 어떤 決定이 있을 것으로 展望되며, 이에 따라 所要原油의 安定確保문제는 앞으로도

〈表3〉 長期 油類需給 展望

年 度	実 積		展 望	
	'62	'71	'81	'86
石油依存度	%	9.4	51.0	62.1
原 油 所 要	百万Bbl (千B/D)	5.8 (16)	85 (234)	198 (544)
精 油 能 力	千B/D	※'64年부터 国内精油	270	790
石 油 備 蓄	日	-	-	30 120

— 原油導入年平均增加率

{'72~'76: 9.2%
'77~'81: 8.8%
'82~'86: 3.7%}

우리 精油業界가 계속적인 努力を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는 状況으로 판단된다.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長期의 으로 에너지의 石油依存度를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原油의 需要도 82년 이후 年平均 3.7%정도의 미미한 增加밖에 없을 것으로 보아도 86년에는 81년의 1.3倍에 해당하는 72万B/D의 原油가 所要될 것으로 予想되는 바 이러한 방대한 量의 原油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 研究·檢討되고 이를 위한 不斷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現在까지의 추세로 보아 앞으로도 国内所要 原油의 공급은 메이저에 의존하던 형태에서 점차적으로 D-D베이스 또는 綜合商社의 仲介에 의한 原油導入형태가 늘어갈 것으로 展望된다. 〈表4〉

〈表4〉 우리나라의 원유도입형태 (81. 8月 現在)
(单位 : 千B/D)

形態別	メイ ジ 供 給	政府間契 約導入 (G-G)	精油会社 直導入 (D-D)	商社仲 介導入	計
導 入 量 (構成比)	254. (45.0%)	165 (29.3)	50 (8.9)	95 (16.8)	564 (100%)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것은 各精油会社가 所要로 하는 原油는 各精油社가 導入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自社工場에 알맞는 原油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最大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精油会社 自体의 으로는 原油確保能力이 없을 경우에는 現在와 같이 綜合商社 등을 活用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原油의 安定確保를 위해서는 현재 中東地域에 偏重되어 있는 導入先을 中東以外의 地域으로 多元化 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80年中에 全體原油의 97%를 中東地域에서 導入해오고 있는데 이는 中東地域의 政情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한地域에 偏重되어 있는 것이다. 〈表5〉日本の 경우 中東原油依存度가 약 75%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아프리카나 南美등에서 原油를 導入해온다면 航海거리가 길어지므로 中東地域에서

□ 特輯 : 석유업계의 当面課題와 展望

導入하는 것 보다 原油輸送費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문제가 있으나 이는 政府에서 石油安定基金으로 追加負担分 만큼은 補填해주게 될 것이다.

(2) 油価 自律化문제

지난 81年 4月19日 油価조정시 정부는 몇 가지 중요한 政策變化를 발표한 바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向後 油価調整은 「大韓石油協會」로 대변되는 精油業界가 自律的으로 조정토록 한 것이다. 周知하다시피 정부는 經濟運用의 自律化를 궁극목표로 하여 모든 경제활동은 民間主導로 나아가도록 政策方向을 제시한 바 있으며, 따라서 精油業界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점차적으로 自律的인 분위기하에서 業界 스스로의 判断에 따라 精油產業을 運用해 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油価 自律화도 이러한 観点에서 理解되어야 할 것이며, 유가自律化가 實施될 경우 精油業界에서도 그간 政府가 油価를 管理함에 따라 과다하게 억눌려왔던 價格面에서의 신축성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가 統制하고 있는 油価体制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内在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油類에 関한 稅制問題, 특히 撥發油 및 輕油에 부과되고 있는 特別消費稅와 油種間 價格構造의 不合理, 자동차 燃料油間의 불균형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油価를 業界가 自律的으로 결정하게 됨에 따라 漸次的으로 해결되어 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油価自律化는 말처럼 그렇게 쉽게 处理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油類에 관한 모든 政策의 귀결이 油価이므로 이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能力を 길러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油価를 管理하는데는 高度의 政策性이 内包되어야 하는 것이다. 油価가 業界의 自律에 맡겨져 있다고 해서 無限定한 油価引上이 許用될 수는 없는 것이다. 精油業界의 利益과 국민의 利益과의 最大公約數를 찾는데에 不斷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으면 또다시 더욱 강력한 정부의 統制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政府로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油価自律化가 실시되더라도 당분간은 油価決定을 위한 基準을 설정하는 등 油価의 完全自律화를 위한 최소한의 規制는 계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는 油価에 관한 기본적인 責任은 精油業界가 지게 되는 것이므로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油価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国内需要 充足에 대한 対処問題

현재 国内 精油會社의 施設能力은 湖南精油가 81年 6月에 15万B/D의 増設을 완료함으로써 現在 79万B/D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시설 능력을 国내 油類의 長期需要를 감안하면 80年代 前半중에는 충분한 정도의 施設能力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후로도 이미 推進中에 있는 油公과 極東의 增設計劃 등을 감안하면 80年代 중반까지는 精油會社의 新增設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判斷되나 80年代下半期에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히 暫托해야 할 것이다.

〈表 5〉 產油国別 原油導入実積

(单位 : 千Bbl (千B/D))

国別	中 東 地 域					中東地域 以 外	合 計
	サウジ	クウェート	イラン	中立地帶	計		
80年実積	109,556 (299)	49,140 (134)	15,515 (43)	3,845 (11)	178,056 (487)	4,806 (13)	182,862 (500)
構成比	59.9%	26.9	8.5	2.1	97.4%	2.6%	100%
81. 6月	(340)	(100)	(50)	(14)	(504)	(60)	(564)
構成比	60.3%	17.7	8.9	2.5	89.4%	10.6%	100%

日本의 地域別 原油導入状況 ('80年実積)

(单位 : %)

	中 東				東南亞	中南美	アフリカ	中 共	合 計 (20個国)
	サウジ	U. A. E	其他	計					
構成比	31.6	13.7	27.9	73.2	19.8	1.8	1.5	3.6	100

이와 관련하여 국내 油類需要의 輕質化 추세에는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外國의 경우에는 国内需要構造 자체가 輕質油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로 상당한 輕質化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表 6) 各国의 用途別 石油類 消費構造

(単位 : %)

用途別 国別	産業用				輸送用	家庭用 其他	小計
	発電	化 学	其 他 鉱工業	計			
韓 国 (80年)	24.2	18.6	21.6	64.4	19.4	16.2	100
日 本 (79年)	23.1	11.6	22.8	57.5	24.7	17.8	100
美 国 (77年)	15.2			15.2	58.9	25.9	100
西 独 (77年)	24.7			24.7	29.0	45.3	100

資料 : • 日 本 : 石油資料月報(81. 4) • 美・独 : 日本石油資料(1980. 5. 16)

現在 우리나라 精油業界의 시설은 重質油 生産を 主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輕質油 需要構造에 맞추기 위하여는 지금부터 이에 대한 対策을樹立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業界에서도 重質油 分解施設의 설치 또는 輕質原油의導入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輕質原油의導入은 그 生産地가 除限되어 長期安定的인 공급을期待할 수 없다는 점에서 重質油 分解施設의 설치가 바람직한 것은 물론이다.

또한 현재 低硫黃原油를導入, 精製하여 低硫黃製品을 공급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低硫黃原油의 制限性等을 고려할 때 長期의으로는 脱黃施設의 설치가 不可避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対策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精油会社 備蓄量의 増大

우리 石油業界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전제적으로 보아 가장 胞弱한 부문이 바로 備蓄分野이다. 原油不足事態를 대비한 備蓄은 政府次元에서 全國의으로 추진되어야 할 課題이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약 40日分정도의 備蓄量밖에는 없는 실정이며, 이것조차도 순수한 의미의 備蓄이 아니고 精油会社가 営業活動을 위해 정상적으로 保有해야하는 在庫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政府는 86년까지는 적어도 60日分의 原油를 備蓄하기로 하고, 이의 財源調達을 위해 79年 7月부터 備蓄基金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精油会社의 경우는 이러한 計劃마저도 없는 実情이며 石油事業法에 의한 法定備蓄施設 조차도 아직 제대로 갖춘 会社가 드문 実情이다.

備蓄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備蓄이 不振한 것은 물론 備蓄에 따르는 막대

한 資金負担때문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러한 資金不足만을 탓할 수는 없는 狀況이며 우선 法的으로 規制된 備蓄施設(시설능력의 60日分)만이라도 82년 까지는 完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政府로서도 80年度에는 石油安定基金으로 備蓄施設 및 物量을 適正水準以上으로 保有한 会社에 대하여는 資金追加負担에 따른 費用을 일부 支援해 준바 있으며 앞으로도 民間備蓄의 增大를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支援을 할 수 있도록 적극 努力해 나갈 것이다. 또한 業界의 입장으로서도 충분한 備蓄物量을 保有하게 되면 國際의으로 상당한 原油충격이 있더라도 弹力적으로 対処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消費者에게도 봉사할 수 있는 能力を 갖게 될 것이다.

(5) 油類供給의 원활화를 위한 施設 및 裝備確保 문제

그 밖에 業界로서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소홀히 하기 쉬운 事項으로서 貯油施設 및 輸送裝備의 확보문제가 있다. 어느 地域에서 어떠한 製品을 販売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떻게 그 地域까지 油類를 輸送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물론 各精油会社의 販売戰略에 속하는 事項이다.

그러나 충분한 施設能力과 함께 필요한 輸送 및 貯油施設을 適所에 유지하는 것은 消費者에 대한 油類의 適期供給에 가장 중요한 要所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精油会社는 충분한 量의 油類를 保有하고 있음에도 輸送裝備나 貯油施設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 競争社인 다른 精油会社에 販売처를 빼앗기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全國이同一한 経濟圈으로서 地域間의 均衡있는 發展이 도모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現在는 油類의 消費規模가 적은 지역도 장차는 大需要地域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地域에 적절한 貯油施設을 設置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工場과 貯油所間, 貯油所와 消費處間의 공급원활을 위한 輸送裝備의 확보가 또한 緊要하게 될 것이다.*